

# 廣州李氏會報



##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주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금월(3月) 회보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猖獗)로 삼일절 정암 종훈선생 추모식, 칠곡 애국동산 추모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특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Q&A” 등, 장문의 원고로 편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 지파 도유사 회의 개최

대중회는 지난 2월20일(목) 오전 10시30분 대종회 회의실에서 지파도유사 회의를 갖고 3월 말 대의원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0년도 사업을 비롯한 대종회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에 거주하시는 사인공파 용균 도유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각 지파 도유사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먼저 옥재 도유사의 인사와 결재 총무유사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주요 현안 사항인 성남시의 대종회 소유부지 수용과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020년도 사업 및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총무·문화·재무)로 보고 하고, 감사결과 의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끝으로 임원회의의 시 검토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논의 끝에 도유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리

하여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모두 마쳤다.



## 독립유공자 유족 간담회 개최



대중회는 2월18일(화) 오전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을 모시고 상견례 겸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연락처가 확인된 22분의 유족 중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둔 유족들이 많이 불참하여 아홉분 만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먼저 국민의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조상님들에 대한 묵념, 참석 유족 및 대종회 집행부 소개와 상견례 인사, 도유사 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옥재 도유사는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을 뵈게되어 반갑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아버님과 할아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이 자리가 상견례의 기회도 되고 앞으로 서로 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석재 문화유사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배경 설명을 통해 “대종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각 지파총회를 통해 독립

유공자 조사를 시작하여 9월까지 총 34분을 파악하고 그중 국가보훈처에 정식 등록된 31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광주이씨회보에 유공자분들의 공훈록을 4회에 걸쳐 연재하고 연락이 가능한 23분의 유족을 파악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유족 개개인별 자기소개와 유족으로서 그동안의 노력과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준 대종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족 모임을 정식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장으로 용일 유족, 총무는 호순 유족을 선임하고, 차기 모임 일자를 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공훈록 집과 유족 연락처 리스트가 제공되었으며, 회의를 마치고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 식사와 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지파종회 소식

## 광릉부원군파종회

### 2020년도 임원회의 개최

광릉부원군파 종회(도유사 대행, 鳳洙)는 2월 27일 종회 사무실에서 2020년도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봉수 도유사 대행을 비롯한 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였다.

봉수 대행은 인사에서 요즈음 코로나19로 인

해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에서 정한 예방 수칙에 따라 손 씻기와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종선 도유사님께서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다 같이 기원하자며 인사에 가름하였다. 이어서 문수 총무가 2019년도 경과보고와 장래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 승재 재무유사의 결산 보고가 있는 다음, 2019년도 결산 안과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다. 이후 기타 현안을 토

의 후 회의를 종료하였다.



## 소 종회 소식

• 도승지(휘 세충)공계 광명종회(회장 곤수)는 2월 9일 종회 사무실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업무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임기가 만료된 현 집행부를 논의결과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승지(휘 세충)공계 장악원 종회는 2020년도 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신임 종회장에 종휘(鍾輝)현종을 선출하였으며, 총무에는 찬수(燦洙) 현종이 선임되었다.

임되었다.

• 참봉(휘 세량)공계 종회에서는 2월 8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종연 현종을 선출하였다. 총무에는 주일 현 총무가 유

• 별좌(휘 세훈)공계 포천 이곡종회(회장 준래)는 2월1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집행부 선출이 있었는데, 준래(俊來) 현 회장을 재 추대하여 연임키로 하였으며, 용석 현 총무 또한 유임되었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기 -

## 광천부원군파종회

### 고문·자문위원 회의 개최



자문회의 실시  
2020. 2. 6.

광천부원군파 종회(도유사 성호)는 2020년 2월 06일(木)에 고문(顧問)2분과 자문위원(諮問委員)6분을 모시고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를 가졌다. 성호 도유사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회의

를 하게 되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요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관계상 회의를 연기할까? 하였으나,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가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는 대의원 총회에 앞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지난해 종회운영의 잘못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종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인사하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1)2020년도 중요 핵심사업 및 예산에 관한 건, 2)청·장년층의 종회 참여방안, 3)수입 증대방안, 4)충북 괴산 부조묘(광천사)의 신도(神道) 설치의 건, 5)대체재산 매입에 대한 견해, 6)광주 지월리 선

산묘역 내 광천부원군(諱 克字增) 봉분증대 개사 초, 7)2020사업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과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원부지 일몰제와 관련 청백리공(諱 之字直)묘역과, 관찰사공(諱 禮字孫)묘역 약 5만여 평에 대해 성남시의 수용방침과 선조님 묘소 이전에 대한 반대 탄원서(歎願書)를 대종회 차원에서 광주이씨 전체 종인에게 서명을 받고 있으니, 우리 종회 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많은 종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역종회마다 성의(誠意)를 다하자는 결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 경자년(庚子年) 광천부원군파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건배를 힘차게 제창한 후 화합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020년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2020년 2월 25일(火) 오전 11시 종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성호 도유사는 “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한 가운데 회의를 연기할까도 생각하였으나, 일정상 미룰 수 없어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 회의는 광천부원군파 종회의 2020년 1년간의 사업을 검토 조정하는 회의로서 지혜와 역량(力量)을 다하여 검토해 줄것을 당부하고, 우리종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2019년도 결산 내역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토의하여, 대의원총회 상정안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지난 2월 6일(木) 자문회의(諮問會議)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종성 부도유사의 경과보고, 부의안건으로는 2019년도 결산내역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어 열띤 토론과 제안 등이 있었다.

끝으로 “우리모두가 종회를 사랑하고 임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기에 종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도유사의 인사로 회의를 마무리 하고,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 “임원 여러분들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시고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종성부도유사의 건배사와 함께 종원간 화합된 마음과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후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 廣川府院君派 總務有事 鍾斗 記 -



2020년 제1차 임원회의  
2020. 2. 25.

### 광원군파종회

## ■ 충민공(忠愍公) 상안(尙安) 불천위제 봉행

광원군파종회 감사공계 충민공종회(회장 증명)는 2020년 2월14일(음, 1월21일) 오전 11시에 성남시 하대원동 종회 재실(忠愍祠)에서 후손 2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충민공(忠愍公) 상안(尙安) 제393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전염병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사공 은재 회장, 광원군 갑수 총무유사, 문경공 명수 현종 등이 제례(祭禮)에 참석해 주었으며, 이날 제례는 초

헌관에 용만, 아현에는 은재 부사공 종회장, 종헌에는 성재 현종, 집례에는 증명 회장, 축관에는 종삼 총무, 집사에는 태수·경재·우재·찬수 현종이 맡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봉행하였다.

공의諱는 상안(尙安)이고 자는 정이(靜而)이다. 관찰사(觀察使) 세정(世貞)의 현손(玄孫)이고 증조(曾祖)는 재령군수(載寧郡守)와 증좌승지(贈左承旨)를 지낸 수진(秀進)이며 祖父는 서산군수(瑞山郡守)를 지낸 맹창(孟昌)으로, 二子를 두셨는데 長子의諱는 광국(匡國)이시고 연산현감(連山縣監)과 贈 제용감정(濟用監正)을 하였고, 次子의諱는 광록(匡綠)이신데 충의위(忠義衛)를 지내셨다. 右贊成에 贈職되시고 諡號는 忠愍이다. 安州 忠愍詞에 配享되시고 肅宗祖에 忠臣 정려(旌

閭)를 받으셨다.

후손들은 선조님의 고결하신 뜻을 이어받아, 우러러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가 제(祭)를 올렸다.

-충민공종회 총무 종삼 記-



### 지파도유사글 광릉부원군파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온통 난리다. 2002년 발생한 사스(발생국 중국)에 흥역을 치렀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발생국 멕시코·미국), 2012년도에는 메르스(발생국 사

우디·중동)로 인하여 또 한 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이 삼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사망자도 나왔다. 이처럼 모든 변종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동물에서부터 시작되어 생겨난 바이러스로, 사스의 경우 사향 고양이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종플루는 돼지와 조류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종 된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매개체로 생겨난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현재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우 박쥐에서 생겨난 변종 바이러스라는 설과 천산갑이라는 동물에서 생겨난 변종 바이러스라는 설이 난무하다. 아무튼 모든 증상은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전파된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 맞는 백신이 나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변이(變異)를 한다는 사실이다. 백신이란 전염병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얻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항원(抗元)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야만 될 때가 아니라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

## 신종 바이러스 면역력을 증강시켜 이겨 내자.

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저항력이 있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한다 해도 우리 몸에는 이와 맞서 싸워줄 우군이 있다. 바로 “면역력”이다. 속담에 지피지기(知彼知己 : 적의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란 말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또한 면역력이 뭐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면역력이란” 바이러스를 비롯한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왔을 때 몸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의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예로 우선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하며,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활동을 촉진시켜 활발한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장도 튼튼해지면서 면역력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운동량과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과한 운동이나 운동량이 많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적당한 운동량이 필요하며, 운동시간은 약 30분 가량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야만 면역세포가 왕성해져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에 얽매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면역력을 증가 시키는데 힘을 써야만, 그나마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흔히 우리 가정에서 많이 먹는 마늘·생강·부추·시금치·양배추·양파·버섯·강황·석류·감귤·토마토·삼치·굴·닭고기·돼지고기 등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물론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체

질에 따라 맞춰 먹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특히 환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기에 쉽게 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도 약해져 감기에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 특히 이보다 더 무서운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최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평상시 생활 수칙을 잘 지켜 면역력 증진에 힘을 써야 그나마 질병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일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이다.

온난화는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며, 이밖에도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열대림 파괴, 사막화, 대형 산불 등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표면의 기온을 상승시켜, 이로 인한 남·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계속 녹고 있음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동물에서 전이된 변종 바이러스로 세계가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수만 년간 잠자고 있던 미생물 바이러스가 잠에서 깨어나 지구를 공포 속으로 빠뜨릴 위험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러시아의 야말반도에서 순록이 폐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원인은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숨어있는 탄저균에 의한 폐죽음이었다. 이보다 훨씬 앞선 1995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유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집단 괴질의 원인균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살면서 이제는 각종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 모두 우리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 전부 남의 나라 일 같지만, 모두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며 방어라고 생각한다. 늘 건강하시고 면역력을 증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광릉부원군파종회 도유사 대행 봉수 황

# 500년 전의 조선 풍속



용경(隆慶) 원년인 정묘년(1567)에 명(明)나라의 용경황제(隆慶皇帝:목종(穆宗))가 등극하니, 조사(詔使)인 태사(太史)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이 국경에 왔다. 우리 경내(境內)로 들어올 즈음에, 조선

조 13대 임금인 명종(明宗)이 승하(昇遐)했다. 태사는 부음(訃音)을 듣고 나라에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상신(相臣)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고서 야한양에 들어왔다. 이때 조선의 상신은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었다. 공은 예의에 맞게 길사와 흥사를 아울러 거행하였다. 또 새 임금이 아직 책명(冊命)을 받지 않아서 난처한 일이 많았으나, 참작하고 힘껏 변론한 것이 모두 알맞았다. 두 사신(使臣)은 공의 거조가 화평하고 조용하며 국사가 정돈되어, 길사와 흥사가 병행되어도 하나도 예절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보고 서로 돌아보며 탄복하여, “나라에 어진 정승이 있는 것이 어찌 중대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태사(太史)는 기뻐하고 공을 예우하며 몹시 존경하였고, 반드시 ‘상공(相公)’이라고 불렀다. 태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가마에서 내려 공의 앞에 와서 절한 뒤 떠났고, 돌아간 뒤에는 항상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공의 안부를 물었다. 조선에 머무는 동안 공과 조용하게 담론하면서, 국가의 예제(禮制)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없었고, 공에게 기록해 보이기를 청했다. 공은 즉석에서 붓을 잡아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니 일명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이다. 태사가 더욱 탄복하여 가지고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오고 있다.

동고상공(東阜相公)의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 신의를 높이 숭상하고 유술(儒術)을 아주 좋아한다. 예양(禮讓)이 풍속으로 되었고, 유순하고 조심함이 풍습으로 되었다.

사대부(士大夫) 집에서의 상·장제례(喪葬祭禮)는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 가례(家禮)대로 한다. 부모의 상에는 거의 다 3년동안 여묘(廬墓)하며,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士)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그동안에 혹 죽만 마시면서 상을 마치는 사람이 있으며, 소금뿌린 나물을 먹지 않는다. 혹 손수음식을 마련해서 제전(祭奠)을 이바지하기도 한다. 혼취(婚娶)에는 반드시 매자(媒子)를 통해서 납채(納采)하며, 같은 성씨(姓氏)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사대부는 모두 가묘(家廟)를 지어서 사시중삭(四時仲朔)에 반드시 향사(享祀)한다. 기일(忌日)에는 자손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며, 침당(寢堂:정침)에서 그 신주(神主)에게 제사한다. 6품 이상(六品以上)은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며, 서인(庶人)은 다만 고비(考妣)만 제사한다. 만약 적장자(嫡長子)에게 후사가 없으면 다음 아들이, 다음 아들도 후사가 없어야 첩(妾)의 아들이 제사를 받는다. 방친(旁親)으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자는 부제(祔祭)하며, 적·첩(嫡妾)이 아울러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신고하고, 같은 종파의 지자를 세워서 후사로 삼는다.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는, 지아버가 죽으면 종신토록 절개를 지킨다. 사대부로서 아내가 죽고 없는 자는, 3년 후에 다시 장가한다. 만약 부모의 명을 인하거나, 혹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자는, 기년 후(耆年後)에 다시 장가감을 허가한다.

해마다 임금이 선농(先農)에 제사하는데,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해서 자성(築盛)을 이바지한다. 왕비(王妃)는 선집단(先蠶壇)에 향사(享祀)하며, 후원(後苑)에서 누예를 쳐서 여공(女工)을 도술(導率)한다

해마다 늦가을에 임금이 양로 잔치를 거행한다. 잔치에 참여한 자는 모두 한 자급(資級)을 제수하며, 효자(孝子)·효손(孝孫)·의부(義夫)도 함께 식물(食物)을 준다. 왕비는 내전에서 부인들과 잔치하면서, 절부(節婦)에게 아울러 식물을 주며, 모두 하사하는 물품이 있다. 나이가 100세 이상인 자는, 해마다 쌀을 하사하며, 당상관 이상으로서 나이가 만 70인 자와, 공신의 부모와 아내와 당상관의 아내에게는 아울러 달마다 술과 찬을 보낸다.

효우(孝友)·절의(節義)·열녀(烈女)는 그 행적에 따라, 혹 관직으로 상(賞)하며, 물품으로 상한다. 혹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기도 한다. 청백리(清白吏)로서 현재 생존한 자는 포장(褒獎)하고, 사망한 자는 그 자손을 모두 녹용(錄用)한다. 전쟁에 죽은 사람의 자손도 또한 위문하며 녹용한다.

종과 대신의 죽음에는 애도를 표시하고 조회를 중지한다. 관원을 파견해서 조제(吊祭)하며, 관에서 상사를 비호(庇護)한다. 공사를 인해 외지에 있다가 죽은 자에게도, 부물(賻物)과 제사를 내린다. 종실은 비록 자질(資質)이 낮더라도, 기친(耆親) 이상에게는 모두 조문하고 부물하며, 장사를 돌보아 준다. 시강관(侍講官) 및 대간은 품질(品秩)의 높낮음을 논하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부의를 한다. 친상(親喪)을 만난 자에게도 또한 같다.

귀후서(歸厚署)를 설치하고 관곽(棺槨)을 준비해서 민간에 갑작스러운 쓰임을 도와준다.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자와 장죄(贓罪)를 범한 자, 재가한 부인은 삼사(三司)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의 자손은 사류(士類)로 치지 않는다.

아들 다섯이 과거에 올랐으면 그 아버지에게 해마다 쌀을 하사하고, 죽으면 제사를 내리고 작위를 추증한다. 문·무과(文武科)에 합격한 자에게는 은영연(恩榮宴)을 하사한다. 그 아버지가 생존했으면, 그가 있는 고을 관청에서 술과 풍악을 주게 해서 영화롭게 하며, 영친연(榮親宴)이라 부른다. 사망했으면 분묘(墳墓)앞에 제사를 베풀어서 영분(榮墳)이라 부른다. 첫째로 합격한 자에게는 쌀을 하사하며, 바로 6품관직(六品官職)에 서임(敍任)한다.

무릇 백성이 가난해서, 시기가 지나도록 장사를 못 지내는 자와, 혼가(婚嫁)할 시기를 놓친 자는, 모두 물자와 재물을 준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고아와 자식없는 늙은이로서 의탁할데 없는 자에게도

의료(衣料:옷감)를 준다.

홍문관 관원은 날을 번갈아 숙직(宿直)한다. 임금이 날마다 강연(講筵)을 개설하는데, 재상과 대간에게도 돌려가며 참석하도록 한다. 또 야대(夜對)라는 것이 있어 군하(群下)의 심정을 다 아뢰도록 한다. 벼슬이 2품에 이르렀고, 나이가 70인 자가 치사(致仕)하면 허가한다. 벼슬이 1품이고 나이도 70이지마는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자가 치사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교서(敎書)와 안석(筮)과 지팡이를 하사해서 의대한다.

당상관으로 실제 행직이 2품 이상인 자는, 그 품질을 보아서 3대를 추증한다. 사대부 및 군졸의 부모 나이가 70이면 한 아들이 군역에서 돌아와서 봉양하고, 80이면 두 아들이, 90이 되었으면 여러 아들이 다 돌아와서 봉양한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종친 및 문·무 당상관과, 당상관으로 나이가 많아서 산직(散職)에 있는 자에게는, 얼음을 반사(頒賜)한다. 활인서(活人署)에서 병든 사람, 형옥(刑獄)에 갇힌 사람에게 아울러 얼음을 준다.

역대 및 본국에 있었던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로서, 행실이 탁이(卓異)한 자의 행적을 모아 엮어 책을 만들어서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이라 한다. 방언(方言:한글)으로 번역한 다음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해서, 부인네와 어린아이들도 깨우쳐 알지 못한 이가 없다.

서울 안에 성균관(成均館)을 설치해서 선성(先聖)을 제사한다. 또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해서, 생원과 진사 500명을 양성한다. 여러 해 동안 관에 있으면서, 학문을 힘껏하고 행실이 도타우나, 여러 차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나이가 50인 자는 적당한 관직에 서용한다. 비록 생원이나 진사가 아니더라도 《소학》과 《사서》와 《경서》 중 한 가지를 통한 자는, 또한 동·서재(東西齋)에 승보(升補)한다. 네 방(坊)에 각각 학사(學舍)가 있어, 경대부(卿大夫)의 자제 및 백성의 자제로서, 준수하고 나이가 8세 이상인 자를 가르친다. 마을에 작은아이로서, 학사에 나아가지 못한 자는, 동몽교관(童蒙敎官)을 두어서 가르친다.

주군(州郡)에도 향교를 설치해서 모두 성균관과 사방학사(四坊學舍)의 제도를 본 한다. 관찰사가 순행(巡行)하면서 그 고을에 이르면 사장(師長)과 유생(儒生)을 모두 시강(侍講)하고, 제과(製課)토록 한 다음, 부지런히 했음과 게으르게 한 것에 따라, 권장 또는 징계한다. 춘추석채(春秋釋菜)에도 관찰사나 수령이 직접 거행하며, 또 유생을 크게 귀향(饋餉)한다.

성균관 유생을 해마다 봄 가을에, 의정부·육조와 여러 관각(館閣) 당상이 제목을 내어서, 제술(製述)하도록 명하고, 과차(科次)한 것을 문부(文簿)에 기록하여, 우등한 세 사람은 바로 문과복시(文科覆試)에 보낸다.

성균관에 승보한 유생 및 사학(四學) 여러 학생은 매년 6월에 고관(考官)을 정해서 날마다 제술토록 하며, 혹 강론(講論)도 한 다음, 통해 고찰해서 우등

50인은 생원·진사 복시에 나가도록 허가하는데, 여러 도(道)에서도 모두 그렇게 한다.

세자는 날마다 대전에 문안하고 시선(視膳)한다. 사부(師傅)·빈객(賓客)·요속(僚屬)과 함께 날마다 세 차례 강론을 한다. 무릇 사부를 접견하는 때는 뜰에 내려서서 맞이하고 보낸다. 매달 보름에 회강(會講)하고, 반드시 음식 자리를 크게 베푼다. 한 책 강독을 마치면 잔치를 크게 벌이고, 또 상사(賞賜)하는 물품이 있다.

경외(서울과 지방) 당하관직에 새로 제수된 자는, 의정부(議政府)·이조(吏曹)와 소속된 조(曹)에 참알(參謁)하는데 10일을 넘겨서는 않된다.

숭의전(崇義殿)을 세워서 전조(前朝) 왕씨(王氏)의 후손에게 주관토록 한다. 능록(廩祿)과 제전(祭田)을 주어서 그 제사를 받들고 있다. 전대(前代:고려)와 신라·백제·고구려의 왕릉에 화전(火田)하는 것과 시초채취(柴草採取)를 관에서 금단한다.

역대 시조 및 공덕이 백성에게 미친 자는, 모두 사당을 세워서 향축(香祝)을 하사하고, 소재(所在)한 고을에서 봄 가을마다 제사하도록 한다. 북교(北郊)에다 여단(厲壇)을 설치해서, 한성부(漢城府) 관원이 봄 가을마다, 임자없는 고혼(孤魂)을 널리 제사한다. 주군에서도 또한 같게 한다.

전중이(옥에 갇힌 사람)에게 겨울에 깔자리를 주고, 여름에는 옥(獄) 안을 깨끗이 정돈하여, 가유(枷杻:갈) 따위를 깨끗이 씻어주어서, 추워서 얼거나 더위에 찌는 듯한 걱정이 없게 한다. 또 의관(醫官)을 정하고 약품을 준비해서 구제한다. 가난해서 옥수(獄囚)를 능히 공양하지 못하는 자는 관에서 능료를 준다.

서울과 외방(外方)에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해서, 곡식이 귀하면 값을 보태서 베(布)를 무(買)하고, 곡식이 헐하면 값을 줄여서 베를 팔아 가난한 백성을 구제한다. 또 별창(別倉)을 두어서, 봄에 백성에게 꾸어 주어서, 농사 종자를 넉넉하게 하고, 가을에 그 수량대로 갚게 해서, 다음 해에 대비함을 해마다 상례(常例)로 한다. 만약 수재(水災)·한재(旱災)·흉년(凶年)을 만나면, 곳곳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해서 기민을 구제한다.

군(郡)과 현(縣)에는 해마다 봄 가을에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설행(設行)한다. 또 서울과 외방 소민(小民)은 동리마다 향장(鄉長)을 뽑고 집마다 쌀과 베를 내어, 향장에게 관리토록 한다. 봄 가을에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음을 다지는데 「강신(講信)」이라 이른다. 무릇 질병이나 환란이 있으면, 서로서로 구호(救護)하며, 만약 상장(喪葬)이 있으면, 관과과장사 수용(需用)을 갖추어서 비호한다.

일찌기 3품직을 지낸 자 및 대간·시독관을 지낸 자의 자손으로서, 승음(承蔭)한 자는 매년 정월에 재주를 시험해서, 관직에 보임(補任)한다. 음(蔭)도 없는 자의 자손은 그 중 준수한 자를 택해, 3품직 이상에 있는 관원이 보거(保舉:보증해서 천거)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조에서 다시 경서를 시험해서, 재격(才格)에 따라 권원된 관직에 보임하는데, 만약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면 보거한 주인도 아울러 죄를 당한다.

과거는 매양(子)·오(午)·묘(卯)·유(酉)년에 삼장(三場)을 실시한다. 초장(初場)에는 논·의(論

義) 두 편을, 중장(中場)에는 부·표(賦表) 두 편을, 종장(終場)에는 책문(策問)을 시험한다. 회시(會試) 초장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강(講)해서 능통한 자를 중장에 응시토록 한다. 중장에는 부(賦)·표(表)·기(記) 중에 두 편을 시험하고, 종장에는 책문을 시험하는데, 통해 고찰해서 뽑는다. 전시(殿試)에는 시무(時務)를 책문해서 높낮음을 매긴다. 만약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임금이 학궁(學宮:성균관)에 거동하면 별과(別科)가 있다. 임금이 시기에 따라 친히 석전(釋奠:석제)을 거행하며, 혹 갑자기 학궁에 거동해서 사유(師儒)와 강론하기도 한다. 혹 경서를 펴서 어려운 곳을 질문하며, 혹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며, 혹 친히 유생을 책문하기도 한다.

무릇 과거에 합격한 자는 전(殿) 뜰에서 방(榜)을 부르며, 어전(御前)에서 술과 꽃과 일산(日傘)을 하사한다. 광대가 재주를 놀며 고취대(鼓吹隊)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사흘동안 거리에 돌아다녀서 영예롭게 한다. 만약 학궁에 거동해서 시취(試取)하면, 그날로 방을 부르는데, 합격한 자는 아울러 안장차린 말과 도포(袍)와 활(笏)을 하사해서 더욱 영화롭게 한다.

성절(聖節:천자의 탄신일) 및 정조(正朝)·동지(冬至)에는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한다. 사신을 보내서 표문(表文)을 올릴 때에도,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분향하며, 사배(四拜)하는 예를 거행한다. 임금이 친히 표문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사신에게 준다. 인해 뜰에 내려서서 국공(鞠躬)하며, 황옥(黃屋)과 의장(儀仗)을 갖춰서 교외에 나가 지송(祗送)한다. 우리나라에서 북경에 간 사신이 혹 칙서를 만들고 돌아올 때에는, 채봉(彩棚)을 설치하여 교외에서 맞이하는데, 화사가 올 때와 꼭 같게 한다. 무릇 진헌(陳獻)하는 예물은, 임금이 반드시 친히 간검(看檢)한다, 종친으로서 나이가 열다섯이 되면 종학(宗學)에 들어가서 수업(受業)한다. 일찍이 읽은 것도 매일 제비를 뽑아서 과권(課勸)한다. 예조에서 사학 여러 학생이 읽은 글을 달마다 고강(考講)한다.

서울과 외방 유생의 매일 읽은 것과, 그 스승의 관직·성명을 문부에다 기록해서, 예조에 갈무리한다. 매번 과거를 치루고 나면, 가르친 유생 중에 급제한 자가 세 사람이거나, 혹은 생원과 진사에 열 사람이 합격했다면, 그 스승의 계자(階資)를 올린다.

제복(祭服)·조복(朝服)·공복(公服)은 한결같이 중화 제도대로 한다.

사시 입절일(四時入節日) 및 늦여름 토왕일(土旺日)마다 나무구멍을 부벼서 불을 일으킨다.

부모 잃은 어린이는 한성부와 본 고을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증해 주며, 관에서 의료(衣料)를 지급한다.

조선이란 땅덩이는 단군이 개국했고,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았는데, 모두 평양에 도읍했다. 그 후 한(漢)나라가 사군이부(四郡二府)를 설치함으로써 삼한으로 오이 갈라지듯 했다.

마한은 54국을 통할(統轄)하고, 진한과 변환은 각각 12국을 통할했다. 그 후 신라·고구려·백제 세 나라가 출발처럼 섰다.

신라지역은 동남으로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 지리산에 이르며, 북쪽은 한수(漢水)까지이다. 고구려는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남쪽은 한수까지이며, 서북쪽은 요하(遼河)를 건너 넘었다.

백제는 서남쪽은 바다에 이르고, 동쪽은 지리산에 이르며, 북쪽은 한수까지이다. 신라가 쇠약해지자 궁예가 철원에 웅거해서 후고구려라 일컬었고, 견훤은 완산을 차지해서 후백제라 일컬었다.

고려 시조가 삼한을 통합하게 되어서는 서쪽은 압록강을 한계로 하고, 동북쪽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했다. 우리 강헌대왕(康獻大王:태조)때에 이르러, 도읍을 한양에다 세우고 팔도로 정했다. 북편을 경기라 하며, 서남쪽은 충청이라 하는데, 서쪽은 큰 바다이다. 모두 옛 마한지역이며, 고구려와 백제가 갈라서 차지했던 땅이다. 동남쪽은 경상인데, 그 동남쪽은 큰바다이고 본디 진한 지역이다. 남쪽은 전라이고 그 남쪽은 큰 바다이다. 본디 변한 지역으로서 그 후 백제의 소유가 되었다. 서쪽이 황해(黃海)인데 그 서쪽이 큰바다이다. 옛적 마한의 땅이고 후일 고구려의 소유로 되었다. 당고종(唐高宗)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그 땅을 능히 지키지 못해서, 신라가 드디어 합병하였다. 말기에 와서는 궁예가 차지하는바 되었으나, 고려 태조가 그 지역을 다 영유(領有)하였다. 동쪽은 강원이라 하며, 그 동쪽은 큰바다이다. 본디 예맥 땅이었는데 후에 고구려가 차지하였다. 서북쪽은 평안이라 하며, 서쪽은 압록강에 닿았고, 북쪽은 말갈과 접해있다. 본디 조선의 옛 땅이었고 후에 고구려가 차지하였더니,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 장수 이적(李勣)과 함께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동북쪽은 함경이라 한다. 동쪽은 두만강에 닿았고, 북쪽은 말갈과 접했는데 본디 고구려 지역이다.

팔도 중에 충청·경상·전라 세 도가 땅이 넓고 물산이 많다. 고을이 웅대하여서 가장 부유하며 풍속이 시서(詩書)와 예양(禮讓)을 숭상한다.

그 중에도 경상도를 영남이라 부르며, 풍속이 아름답고 도학(道學)한 선비가 여러 도(道)와 비교해서 갑절이나 많다. 평안·함경 두 도는 경계가 말갈과 연결해 있어, 풍속이 궁마(弓馬)를 숭상하며 병졸이 강성하다.

註

- 이준경(李浚慶 1499~1572)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阜)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영의정, 원상(院相)으로 선조묘정에 배향되었다. 묘비문에 “道德功烈昭見國史”라고 했다.

- 허국(許國 1527~1596) 휘주부(徽州府) 흡현(歙縣) 사람으로 자는 유정(維貞),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명(明)나라 대신(大臣)으로 검토(檢討), 국자감제주(國子監祭酒), 태상시경(太常寺卿), 예·이부시랑(禮吏部侍郎), 예부상서(禮部尚書) 등을 역임했다. 조선(朝鮮)에 사신으로 몇 차례 다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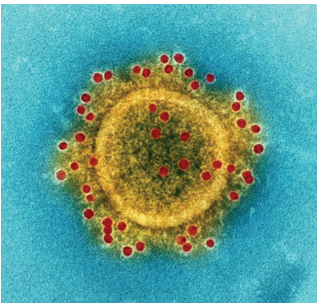
- 위시량(魏時亮 1529~1591) 강서(江西) 남창(南昌) 사람으로 자는 공보(工甫), 호는 경오(敬吾). 중서사인(中書舍人) 및 남경형부상서(南京刑部尙書) 등을 지냈다.

-연혁집 편집위원 주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COVID(코비드)-19>

◆ 편집자 주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급속 확산으로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취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월호 지파총회 소식 등 원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3월호에는 문제시 되고있는 코로나바이

러스와 관련한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편집 게재하여 종인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분부

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코비드)-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지만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건의를 수용해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주요 질의(Q) / 답변(A) 내용]

#### Q,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Q,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땀,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Q,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2020년 2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 Q,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 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 Q,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시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Q,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Q, 자택 내 독립된 공간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A,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별기준이 있나요?

A,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

####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C 이상

**Q,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Q,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1)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하기도(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 통에 뱉어 채취

②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2)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

: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A,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A,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

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원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Q,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Q,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베이성 방문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합니다.

후베이성의 중국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

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Q,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나요?**

A,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나 그 외 호흡기 관련된 의료적 처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Q,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A,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Q,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A,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여행 중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9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15.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시요.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 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Q,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심자를 돌보는 경우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다. 마스크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진 백암온천

“몸속 세포까지 행복한 치유온천... 천연 53℃ 수소수“



그림 - 백암온천 관광특구 단지 전경사진 -

백암온천은 약천년전에 白巖寺 신미선사 석조 욕장 설치로부터 조선시대 서거정과 성현의 湯沐井, 이산해의 溫湯井, 白巖寺가는 길 등의 기록으로 알려지면서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상업운명을 시작으로 1970년대 본격적인 온천개발이 시작되었고, 1979년 국민관광지 1997년 온천특구로 지정되면서 연간 200만명이 즐겨찾는 국민관광 온천휴양지로 30여년의 온천특수를 누린 대한민국

최고의 천연 53℃ 알카리성 유황온천이었다.

국내 온천의 정의는"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온천공과 온천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유황성분은 감소하고, 매년 20여개의 대도시 근교 온천개발 붐을 타고 전국에 난립된 500여개의 크고 작은 온천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지금은 연간 50만명 정도의 온천 메니아들이 즐겨 찾는"용존 수소이온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풍부한 천연 53℃ 알카리성(ph9.6)의 피부 노화방지와 보습효과가 탁월한 실리카성분이 많은 수소수 온천"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물 좋고 공기 좋은 온천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온천수질과 의료적인 치료효능을 입증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울진군과 한국온천학회는 약 7년간의 학술대회와 연구용역을 통

하여 백암온천의 피부과적, 재활의학과적, 순환기내과적인 의료적 효능뿐만 아니라 온천의 성분과 온천수의 특성이 입증되었다.

카톨릭의대에서 아토피피부염 및 건선의 유용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피부 진피층 조직염증과 면역체계의 개선을 검증하였고, 건국대의대 재활의학과의 트레스밀 운동기구의 쥐 실험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관절염의 치료의 우수성과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연세대 원주의대 온천수 음용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량의 음용수는 위 점막손상과 위염의 예방효과와 소화기능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비화산성 잔류마그마의 지열에 의한 심부지하수에 포함된 황화수소와 암반의 자연방사능 붕괴로 온천수와 함께 올라오는 천연라돈 가스는 지표로 용출시 대기에 확산 휘발하는 불활성 기체로



온천수의 흡입치료에 "좋은가스"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경희대 한의대와 울진해양바이오 연구 센터는 온천수의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증 개선효과와 실리카 성분과 한방추출물을 이용하여 화장품과 입욕제 개발을 통하여 온천수의 효능과 성분을 기능성 상품개발에 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온천은 과도한 온천수 취수로 인한 수위강하와 시설 재투자가 미미하고 노후화되어 목욕탕 중심으로 운영되며 온천관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국가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온천법의 개정으로 온도,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며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요양, 휴양을 겸한 보양온천 제도의 필요성으로 현재 울진 덕구온천을 포함한 국내 총9곳의 보양온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양온천 지구지정 기준은 좀더 과학적인 분석과 의료적인 효능 입증을 통해서 시설기준보다는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온열치료와 재활, 물리치료 개념을 적용해 현행 의료보험 수가적용도 입 필요성이 온천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호텔 5개와 한화콘도, 엘지, 포스코, 농협연수원과 모텔등 2,000개 이상의 객실과 펜션, 민박을 보유하고 동해안에서 당일 10,000명의 인원이 숙박을 겸한 온천과 해산물, 농산물, 임산물을 구매하고 주변관광을 통해 호황을 누리며 영원히 성황을 누릴것을 기대한 동해안 숙박거점 백암온천 르네상스 신화는 온천 폐수의 피해와 산업화의 유흥위락 관광특수의 뒤편길로 10여년 쇠락의 길을 이어오면서 인구감소와 시설노후로 이제는 그동안의 과도한 운영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치유하

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도약을 위한 정비의 고통을 감내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울진군의 온천단지 주변경관 개선사업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천의 의료적 효능입증을 통해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의료적 효능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홍보하면서 다양한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 및 온천수질 체험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온천폐열(35~40℃)을 이용한 농작물재배와 장어양식장등 온수활용 기술적 가능성을 조사하고 온천지구내 국,공유지를 야외온천 SPA시설과 온천수치료를 겸한 놀이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온정면발전협의회 故人이 되신 이용억 회장의 有志와 백암온천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객실가동률이 높은 대기업 연수원과 사업장의 단체식당 운영을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 문제점을 검토하고 온천사업자와 지역상권의 상생과 소통을 위한 협조와 공조를 모색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온정면 파출소의 운영을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야간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24시간 상시운영 인력확보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

온천 이용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자원 확보를 사업주의 노력과 울진군의 지속적인 온천효능과 의료적인 치료입증을 통하여 보양온천의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체와 상품개발을 통해 다양한 온천수의 이용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매년 찾

는 관광객을 인근 후포항 해산물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생태 문화 관광을 진의삼림욕, 해수욕, 온천욕, 식욕 등 오감만족을 통하여 "몸속 세포까지 행복한 천년역사의 백암온천"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산해(1539~1609)가 울진 평해부사로 재직 시 쓴 백암온천 관련 시 "온탕정"

-문속공파종회 총무유사 태 환 書-

### 바르게 고칩니다.

<제356호>

- 7면 좌측 제3장 상 3행 :  
말이 파리하게 → **말**이 파리하게
- 좌측 제5장 상 1행 :  
(임**해**밀밀봉) → (임**행**밀밀봉)

## 광주 · 전남종친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개최

### '경향각지에서 150여명 참석 성황'

광주이씨 光州 · 全南종친회(회장 珉載)는 지난 2월 1일(土)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수자타회관 2층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경건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종회 玉載도유사, 광원군종회 錫來재무유사를 비롯 秉淳, 容鎬 전 종친회장, 容璿 전 양진재공 종회장, 容煥 양진재공 종회장, 亨來 회수회장, 용필 청년회장 등 경향 각지에서 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성원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조상님에 대한 묵념, 신년상견 하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9년 결산안 승인, 2020년도 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珉載회장은 내빈 소개에 이어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명문가 후손으로서 송조효친(崇祖孝親) 사상양양으로 선조님의 얼을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玉載도유사는 축사에서 대종회 현황 소개와 함께 서울 성남 도시 계획 시설(대원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내에 편입된 청백리공(휘

지직) 묘 일원(봉분 8기)과 관찰사공(휘 예손) 묘 일원(봉분 2기) 연 면적 80만㎡에 있어 묘소의 절대 천장불가를 전국 20만 광주이씨 종인 이름으로 탄원키 위해 현재 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종인들은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玉載도유사는 이어 여성들의 종친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출가녀와 며느리 모임이 전국적 추세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광주 · 전남 종친회도 이 문제를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재 회장은 점진적 검토의 뜻을 밝혔다.

한편 玉載도유사는 대종회 사상 처음으로 종친회 발전 기금 300만 원을 珉載회장에 게 전달, 종인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끝으로 종친회 원로이신 容善 전

종친회장(98세)은 "모든 종인들은 종친회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는 새해 덕담을 해주셨다.

총회 후반에는 임채만 단장이 이끄는 무등 예술단 난타와 맘모스 아코디언 공연을 끝으로 이날 정기총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容善 고문 100만원, 亨來 광주 · 전남화수회 회장 20만원, 三來 이사 100만원 상당 기념품을 찬조해 주셨다.

광주 · 전남 종친회 부회장 광래 記



# 재경화수회 산악회 청계산 등반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2월23일(일) 쾌청한 날씨속에 청계산 옥녀봉(해발 375m)을 등반하였다.

이날 아침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에 모인 17명의 회원들은 10시30분 모임장소를 출발하여 등산길에 올랐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계곡길로 접어들어 엇그제 내린 비로 계곡물 또한 청계(淸溪)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했다. 등산로 곳곳에는 요즘 몇일 사이



영상의 따뜻한 날씨로 새싹이 솟아오를 듯하고, 나뭇잎이 금세라도 터져 나올 기세였다.

오르는 도중에 약수터 벤치에 잠시 앉아, 단숨에 오르느라 가빠진 숨을 잠시 고르며, 환담을 나누니 영웅호걸이 부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몹쓸 바이러스에 한껏 움추렸던 심신을 잊기라도 하듯 여기저기서 사진 촬영하는 표정들이 한층 밝아 보였다.

하산길 입구에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길

건너 양평해장국집에 도착하니 범수 전 산악회장 내외가 도착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함께하였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지난해 마무리 하지 못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재석 회장의 사회로 석연 감사의 적절했다는 결산보고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신임 회장선출에서는 22대 중두 회원이 24대 시하(時夏)회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으며, 감사로는 신임 회장이 추천한 재석 전임회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선임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파전 안주에 막걸리 한잔씩으로 목을 축이며 일가화친의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식사로 세상 걱정을 털어버렸다.

-산악회 총무 성수記-

## 보학용어 해설[31]

### ■ 과거제도(科擧制度) [8]

#### 3. 과거의 종류

##### 자. 전시(殿試)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시대에 복시(覆試)에서 선발(選拔)된 사람에게 왕(王)이 친림(親臨)하여 시행하던 3단계의 최종 시험이며, 고려시대에 전시가 실시된 것은 1369년(공민왕 18) 원(元)나라의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법이 채택되고부터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과(大科)인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초시(初試; 향시)·복시(覆試) 합격자에게 전시를 실시하였는데, 과·락(科落)을 결정한 시험이 아니라 복시 합격자의 등급을 정하느냐 시험이었다. 전시는 3년마다 식년(式年)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 식년무과전시,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열던 증광(增廣)문과전시·증광무과전시, 경사나 10년에 한 번 연 중시(重試)가 있을 때 같이 시행하던 별시(別試)문과전시·별시무과전시, 임금의 문묘(文廟)에 참배한 뒤 명륜당(明倫堂)에서 열던 알성(謁聖)문과전시·알성무과전시, 10년에 한 번 당하관(堂下官; 정 3품 당하관 이하)에게 보이던 중시(重試)문과전시·중시무과전시, 역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던 정시(庭試)문과전시·정시무과전시 등이 있었다. 이 중 식년문과 전시는 복시입격자 33명과 직부전시인(直赴殿試人; 초시, 복시를 거치지 않고 달리 응시자격을 얻은 자)을 전정(殿庭)에 모아 시행하였는데, 시험전에 조복(朝服)을 입은 독권관(讀卷官), 대독관(對讀官)과 흰옷에 흑두건(黑豆巾)

을 한 응시자들이 국왕에게 국궁사배(鞠躬謝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문과전시(文科殿試儀)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시험은 의정(議政) 1명을 명관(命官), 종2품 이상 2명을 독권관, 정3품 이하 3명은 대독관, 승지(承旨)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 시행하였는데, 고시과목은 표(表)·책(策)·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론(論)·부(賦)·명(銘) 등 10과 중의 1편을 고시하였으나 그 중 책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전시는 33명의 등급을 정하는 데 불과하여 부정이 없는 한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으며, 성편(成篇)하지 못하였거나 전연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한 답안이 있더라도 다음 식년전시에 다시 응시하게 하였다. 분등(分等)은 1466년(세조 12)부터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나누고, 직부전시인은 정원의외로 취급되어 성적에 관계없이 방말(榜末; 병과)에 붙여서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고려에서와 같이 10회 이상 떨어진 십거부중자(十擧不中者)에게 출신(出身)을 주는 은사급제(恩賜及第)가 있었으나 1438년(세종 20)에 폐지되었다. 합격자 중 갑과 1등은 종 6품, 2·3등에게는 정 7품, 을과 전원에게는 정 8품, 병과 전원에게는 정 9품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나 갑과 3명에게만 실직(失職)을 주고 나머지는 사관(四館)에 권지(權智; 試補)로서 두었다가 자리가 나는 것을 기다려 실직을 주었다. 증광문과전시도 고시과목이 식년과 같고 정원도 33명으로 같았으나 큰 경사가 있을 때 하던 대증광시(大增廣試) 때에는 40명을 뽑았다. 별시문과전시의 정원은 때에 따라 달라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 가장 적었다.

알성문과전시는 초·복시가 없이 전시 한번의 시험에 의하여 뽑고, 응시자격도 처음에는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에게만 주던 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달리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입장하여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심지어 맹인(盲人)까지 모여들어 1694년(숙종 20)에는 만여 명, 1739년(영조 15)에는 1만 8,000명 정도나 되었다. 이렇게 응시자가 많고, 발표도 당일로 하기 때문에 시험관도 30명이 넘었으며, 고시과목도 채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책을 피하고 표(表)를 많이 출제하였는데, 입격 정원은 그때그때 달랐다. 중시문과전시는 당하관에게 10년마다 보였던 승진시험으로 표·책 중의 1편을 고시하였는데, 정원은 일정치 않아 많을 때가 19명, 적을 때가 3명이었는데 등급은 을과 제1등, 을과 제2등, 을과 제3등으로 나누어 을과 제1등의 제 1인은 4계급, 제2·3인은 3계급, 을과 제2등은 모두 2계급, 을과 제3등은 모두 1계급씩을 승진시키되 정 3품의 당하관까지를 한도로 하였으며 참외(參外; 정 7품 이하의 벼슬)는 모두 6품으로 승진시켜주었다. 식년무과전시는 의정(議政) 1명을 명관(命官), 2품 이상의 문관 및 무관 각 1명, 3품 이하의 문관 및 무관 각 2명을 시관(試官)으로 하여 복시 입격자 28명을 시험하여 등급을 정하였는데, 고시과목은 처음에는 기격구(騎擊毬), 보격구(步擊毬)로 하고 뒤에는 11기(技) 중에서 1~2기로 하여 성적에 따라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분등하였다. 별시무과전시도 위와 같으나 정원은 두지 않고 입격하는 대로 뽑았다. 알성무과전시는 초시에서 넘어온 100명을 복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무과전시와는 달리 임금의 친림(親臨) 아래 시행하였다. 중시무과전시는 10년에 한 번 당하무관(堂下武官)과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

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등을 초시에서 100명을 뽑아 역시 복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무과전시(武科殿試)와 같은 방식에 의해 뽑았다.

차. 중시(重試)

과거에 급제하여 문(文)·무(武) 당하관(堂下官)이 된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특별 시험으로 1122년(고려 예종17) 왕이 사루(紗樓)에서 문신에게 모란시(牡丹詩)를 짓게 하여 등급을 정한 것이 중시의 시초이다.

1427년(세종9) 제도화되어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증광전시(增廣殿試)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카. 증광시(增廣試)

조선시대 즉위경(即位慶)이나 30년 등극경(登極慶)과 같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거나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임시로 보이던 과거로서 소과(小科)·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가 있었다. 1401년(태종1) 왕의 등극을 경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1589년(선조22) 종계변무경(宗系辨誣慶), 90년 종계변무 및 상존호경(上尊號慶), 1605년 공신책훈(功臣册勳)·상존호경, 이듬해의 즉위 40년경(慶), 1612년(광해4) 창덕궁 낙성 및 세자가례경(世子嘉禮慶), 52년(효종3) 왕세자가례·입학·김자점토역(金自點討

逆)을 축하하기 위한 합삼경(合三慶), 62년(현종3) 효종부묘(孝宗祔廟)·양대비존숭(兩太妃尊崇)·왕비 책례(册禮)·원자(元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합오경(合五慶) 등이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식년시(式年試)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가 생원·진사의 초시(初試)·복시(覆試), 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殿試)의 5단계로 나누어 지며 시험과목도 같았다. 때로는 대증광(大增廣)이라 하여 문과합격자에 7명을 더하여 선발하였다.

타. 친시(親試)

과거(科擧) 시험 때 임금이 몸소 과장(科場)에 나와서 시험을 관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촌선생 명시선 63

元日叙懷呈牧隱 二首  
원 일 서 회 정 목 은 이 수

男兒出處豈徒然 軒冕山林只在天 共喜先生  
남 아 출 처 기 도 연 현 면 산 림 지 재 천 공 희 선 생

無病日更爲宰相 太平年偶因梵采遊江寺 還  
무 병 일 경 위 재 상 태 평 년 우 인 범 채 유 강 사 환

向君門望漢川 自愧遁夫疎懶甚 春來未得信書傳  
향 군 문 망 한 천 자 괴 둔 부 소 라 심 춘 래 미 득 신 서 전

年來自覺已衰遲 滿眼新愁滿鬢絲 肉食何人  
년 래 자 각 이 쇠 지 만 안 신 수 만 빈 사 육 식 하 인

憂歲歉藜羹有客苦 村飢春寒雨雪那堪喜 世  
우 세 겸 려 갱 유 객 고 촌 기 춘 한 우 설 나 감 희 세

亂江山不可期 睡起南牕無興思 呼童索筆強題詩  
란 강 산 부 가 기 수 기 남 창 무 흥 사 호 동 색 필 강 제 시

원일에 회포를 풀어 목은에게 드리다, 이수

※ 선생은 이때에 행재소에 있었다.

남이(男兒)의 출처(出處)가 어찌 까닭이 없으리요만, 현면(軒冕)<sup>1)</sup>과 산림(山林)<sup>2)</sup>이 도시 운명이라네. 선생의 병 없는 나날을 함께 기뻐하고, 다시 재상(宰相)이 되어 태평한 세월 이루소서. 우연히 범채(梵采)<sup>3)</sup>있다가에 강사(江事)에 놀았고, 다시 그대의 집 향하려다 한천(漢川)만 바라보노라. 부끄럽게도 둔부(鈍夫)는 게으름이 심하여, 봄이 왔어도 신서(信書)한 장 못 전했네. 근래에는 너무 노쇠(老衰)했음을 스스로 느끼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근심할 뿐이요 귀밑엔 흰털뿐일세. 육식(肉食)하는 사람<sup>4)</sup>이야 누가 흉년을 걱정하리, 여맹(藜羹)먹는 나그네 하나 촌기(村飢)<sup>5)</sup>를 괴로워하네. 봄이 추운데 눈비를 어떻게 즐기겠는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강산도 기약할 수 없구려. 남창(南窓)에 잠을 깨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지만, 아이 불러 붓을 찾아 억지로 시를 짓네.

1) 현면(軒冕):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아치가 쓰는 관인데, 변하여 고위 고관(高位高官)을 말함.  
2) 산림(山林): 벼슬이 없이 산림에 묻혀 산다는 말.  
3) 범채(梵采): 초경채(酢蓼采) 맛이 시고 달콤한 산나물. 절간에서 많이 먹음. 未詳, 元일에 산나물이 있을는지? 불사를 말함인 듯.  
4) 육식(肉食) 하는 사람: 벼슬을 하고 많은 녹을 받는 사람.  
5) 촌기(村飢): 시골 백성의 굶주림.

이달의 明心寶鑑

- 甚愛必甚費 심애필심비
- 甚譽必甚毀 심예필심훼
- 甚喜必甚憂 심희필심우
- 甚賊必甚亡 심장필심망

[해설]

사랑함이 심하면 반드시 소모함도 심하고, 칭찬이 심하면 반드시 헐뜯음도 심하고, 기쁨이 심하면 반드시 근심도 심하고, 뇌물받음이 심하면 반드시 망함도 심하다.

-성심편(省心篇) 중에서-

# 2020년 산악회 “시산제” 행사안내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시하)는 금년 한해 우리 광이 일가의 안녕과 산악회원들의 무사안전 산행을 위하여 문중 내 여러 어르신과 종인들을 모시고 둔촌 선조님의 유흔이 깃들어 있는 둔곶과 정훈비가 세워져 있는 강동구 소재 일자산 해맞이광장에서 아래와 같이 시산제를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 ▶ 일시 : 2020년 3월22일(일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정상 해맞이광장(둔촌선생 정훈비 앞)
- ▶ 참석 : 산악회 회원, 재경화수회, 종인 및 가족 모든 분
- ▶ 준비물 : 등산복 또는 간편복

### ▶ 안내사항

- 11:30분 시산제를 올릴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악회원은 당일 09:00시까지 육교 앞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산악회에서 제공합니다.
- 점심식사 장소 : 착한낙지(강동구 동남로 592(둔촌동 105-10))

### <연락처>

- 산악회장 시하(규철) : 010-5335-4912
- 등반대장 종두 : 010-5348-4001
- 산악회 총무 성수 : 010-8687-1044

### ☞ 행사장 찾아오는 길

- ◆ 승용차 이용시 :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후문(장례식장 정문) 앞 공터 및 일자산 등산로 입구 주차 가능
-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 이달의 행사 계획

### 1. 대총회 대의원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3월3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퍼시픽호텔(2층 남산홀)
-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 2. 제402차 재경화수회 월례회의 (휴회)

### 3. 재경화수회 산악회 시산제 (휴회)

※ 상기 계획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시시오

| 이름                         | 금액(원)  | 비고            | 이름  | 금액(원)  | 비고         | 이름                              | 금액(원)  | 비고        |
|----------------------------|--------|---------------|-----|--------|------------|---------------------------------|--------|-----------|
| <b>2월 구독 및 찬조</b>          |        |               | 이춘수 | 10,000 | 경기도 양평군    | 이종욱                             | 10,000 | 충청북도 청주시  |
| 이중진                        | 10,000 | 서울시 광진구       | 이성래 | 10,000 | 경기도 시흥시    | 이복재                             | 20,000 | 경기도 여주시   |
| 이택성                        | 10,000 | 대구 달서구 (관기중중) | 이윤진 | 10,000 | 경기도 성남시    | 이영래                             | 20,000 | 경기도 용인시   |
| 이현수                        | 30,000 | 서울시 송파구       | 이수평 | 20,000 | 대구광역시 북구   | 이달수                             | 20,000 | 충청북도 음성군  |
| 이수욱                        | 10,000 | 충청북도 제천시      | 이석주 | 10,000 | 부산광역시 중구   | 문경공파 현감공종회 10,000 X 14명=140,000 |        |           |
| 이근찬                        | 10,000 | 경기도 시흥시       | 이삼래 | 20,000 | 광주광역시 남구   | 이수영                             | 10,000 | 서울시 노원구   |
| 이용성                        | 10,000 | 전라남도 보성군      | 이동재 | 10,000 | 경기도 남양주시   | 이택                              | 30,000 | 경상북도 칠곡군  |
| 이중수                        | 20,000 | 경기도 구리시       | 이권식 | 10,000 | 경기도 구리시    | 이정실                             | 20,000 | 서울시 종로구   |
| 이병호                        | 20,000 | 전라남도 화순군      | 이점식 | 10,000 | 서울시 노원구    | 이용순                             | 10,000 | 전라남도 보성군  |
| 이중권                        | 10,000 | 충남 아산시        | 이명래 | 10,000 | 서울시 중구     | 이건재                             | 10,000 | 경기도 양평군   |
| 이용정                        | 20,000 | 광주광역시 서구      | 이권래 | 10,000 | 광주광역시 북구   | 이기순                             | 10,000 | 서울시 강남구   |
| 이형래                        | 20,000 | 서울시 관악구       | 이오래 | 10,000 | 광주광역시 북구   | 이창재                             | 10,000 | 전라북도 순창군  |
| 이진수                        | 50,000 | 경기도 안양시       | 이근두 | 20,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이정수                             | 10,000 | 충청북도 청주시  |
| 이덕재                        | 10,000 | 경기도 남양주시      | 이춘교 | 10,000 | 경기도 광주시    | 이종석                             | 30,000 | 강원도 원주시   |
| 좌의정공파종회 10,000 X 3인=30,000 |        |               | 이시재 | 10,000 | 광주광역시 남구   | 이현재                             | 50,000 | 서울시 관악구 호 |
| 이근화                        | 10,000 | 경기도 부천시       | 이종세 | 30,000 | 서울시 금천구    | 이종위                             | 20,000 | 전라북도 고창군  |
| 이근행                        | 10,000 | 서울시 송파구       | 이창선 | 10,000 | 전라남도 여주시   | 이성재                             | 30,000 | 경기도 용인시   |
| 이금교                        | 10,000 | 경기도 양평군       | 이풍재 | 10,000 | 충청남도 부여군   | 이중은                             | 10,000 | 충청남도 예산군  |
| 이형근                        | 20,000 | 서울시 광진구       | 이종건 | 20,0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이주홍                             | 20,000 | 경기도 안산시   |
| 이종민                        | 10,000 | 경기도 안양시       | 이관수 | 10,000 | 전라남도 장성군   | 이명재                             | 10,000 | 경기도 용인시   |
| 이영근                        | 10,000 | 서울시 은평구       | 이명학 | 10,000 | 경기도 평택시    | 이용환                             | 10,000 | 대구시 달서구   |
| 이종일                        | 10,000 | 경기도 화성시       | 이수욱 | 20,000 | 대구광역시 북구   |                                 |        |           |
| 이용술                        | 10,000 | 전라북도 정읍시      | 이완석 | 10,000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총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 02)735-1720 으로 연락주시시오.

광주이씨대총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0年 3月 1日

<제357호>

##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玉載

編輯人 : 李錫演

主幹 : 李碩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